

세계에너지 올림픽, 제22회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지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세계 에너지 올림픽, 제22회 2013세계에너지총회가 90여 년의 총회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고로 성공적인 국제 행사로 평가 받으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구 세계에너지총회에는 120개국에서 약 7,500명이 참가했으며, 일반 참가자들을 포함해 전시회 참관객은 약 3만 명이 방문, 73개국에서 272명의 연사가 참석했다. 금번 총회는 총회 역사상 최대 참가자, 최대 국가 장차관급 참석, 에너지업계의 최고위 연사 등 전 분야에 걸쳐 유례없는 기록을 남기며 세계에너지협의회 역대 최고의 총회로 꼽는 성공적인 총회로 평가 받았다.

지난 1924년 최초 개최된 이후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에너지총회는 전 세계 에너지업계 리더들이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에너지업계 최대 규모 국제회의이다. 전 세계 각국 정부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 주요 국영 및 민간 기업들이 에너지 관련 최신 기술을 홍보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전시회가 함께 열리는 전 세계 에너지업계 최대행사라 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이라는 주제로 화석연료에서부터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셰일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에 대한 제언 '대구선언문' 발표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세계에너지협의회 의장 피에르 가도닉스(Pierre Gadonneix), 세계에너지 협의회 차기 의장 마리 호세 나두(Marie-José Nadeau)는 에너지 전환이 가져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에너지 협의회가 정의한 에너지 삼중고(에너지 안보, 에너지 형평, 환경 지속 가능성) 해결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각의 삼중고 이슈에 대해 협력 방안을 공표하는 대구 선언문을 발표했다.

'대구 선언'의 주요 골자는 글로벌 에너지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한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프레임워크 수립을 약속으로, 대구 선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에너지협의회와 대구세계에너지총회가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의 미래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 언급했다. 한국은 2014년 청정에너지장관회의를 주최



할 예정이며, WEC은 향후 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서 대구총회의 제언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세계에너지협의회와 한국 정부가 합의한 자세한 내용은 세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총회의 중요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을 인정,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클린에너지장관회의에 총회의 논의 결과를 전달기로 합의했다. 둘째, 세계에너지협의회는 올해 APEC경제 리더 선언문을 기반, '환경적' 재화 및 서비스 분야의 APEC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셋째, 모두가 UN사무총장이 주장하는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목적과 2015년 이후 새천년개발목표에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동의했다.

에너지 최대의 비즈니스 성과

이번 총회에서 선보인 국내외 굴지 기업의 전시와 다양한 산업시찰을 통해 국내에서 개최된 에너지 분야 최대의 비즈니스 기회였던 이번 총회는 참가기업의 가시적인 비즈니스 성과도 돋보였다.

올해 국내에서 개최된 전시회 가운데 해외업체 참가율이 가장 높은 전시회로 기록되는 이번 총회의 전시장은 국내의 굴지기업들 참여, UAE, 터키,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5개의 국가관 운영 등을 통해 미래의 에너지를 대비하는 신기술과 에너지 자원의 경제성을 높이려는 국내의 기업들의 최신 에너지 기술을 공유했다. 대구 지역기업의 그린 에너지 활동도 활발했다. 대구 경북 지역 중소기업들의 기술력 소개를 통해 에너지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특히 JK ENG는 몽골과 업무협력을 맺었으며, 한국 중부발전은 브라질 풍력 발전 사업과의 MOU를 통해 브라질 발전 시장에 최초로 진출했다.

총회에 대한 총평

세계에너지총회의 조환익 조직위원장은 “금번 총회는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한 에너지 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하며 실천에 옮기는 장이었다.”며, “한국은 에너지 분야의 진정한 UN과 같은 역할을 했으며, 한국에서 개최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총회를 통해 한국이 더 이상 에너지 분야의 변방국가가 아니라, 중심국가로 도약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해 총회의 성공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에너지 창조경제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세계에너지협의회 의장인 피에르 가도닉스 의장은 오늘 폐회연설을 통해 “지난 4일간의 총회는 매우 놀라웠으며, 이곳 대구에서 감명 깊은 기초연설과 글로벌 화두를 다룬 세션들, 커뮤니티 라운드테이블, 부대 행사 등의 성공적인 운영과 함께 무엇보다 전세계 에너지 업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며, “세계에너지협의회가 향후 다뤄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일단 기후, 무역규칙 및 모든 에너지의 안정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에서 세계에너지협의회는 향후 많은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뿐 아니라, 글로벌 국제표준 에너지 시나리오 형성 및 공공 정책 등에 관해 정부 지도자에게 조언하는데 더 많은 공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회 기간 동안 다수의 연사들은 한국이 녹색성장 정책과 에너지 저장시스템 및 스마트그리드(smart grid)와 같은 최신 에너지 기술부문에서 타국의 모범으로서 동북아 에너지 개발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평했다. 다수의 업계 관측통은 매년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상위 경제포럼인 “세계경제 포럼(혹은 다보스 포럼/The World Energy Forum)”을 언급하며 2013년 대구총회를 ‘에너지 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2013년 총회는 한국 정부와 업계가 주관한 아시아 에너지의 ‘성년식’으로 인식됐다.